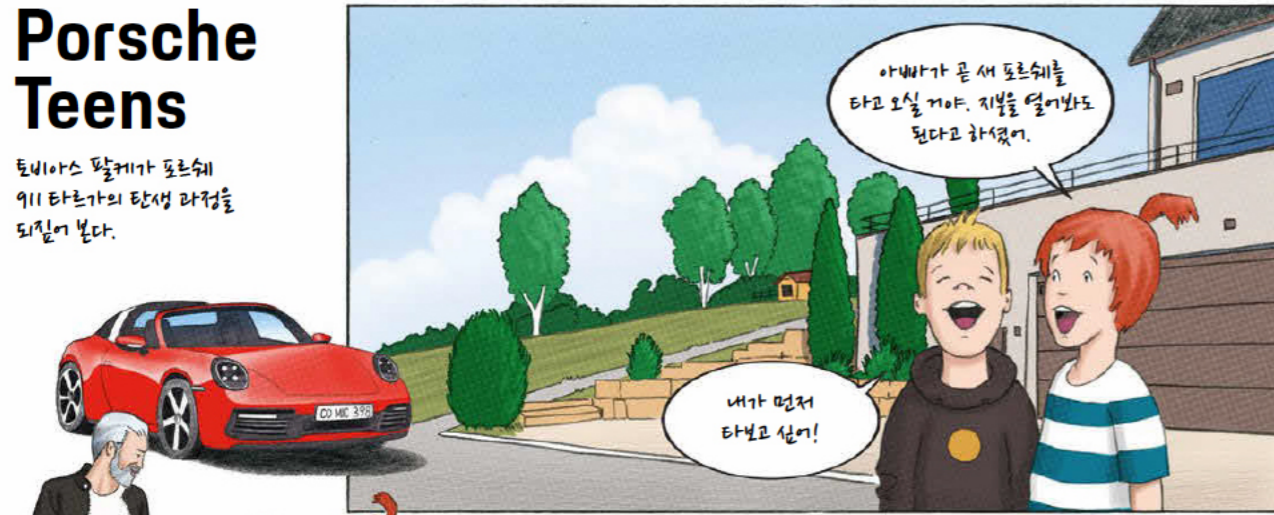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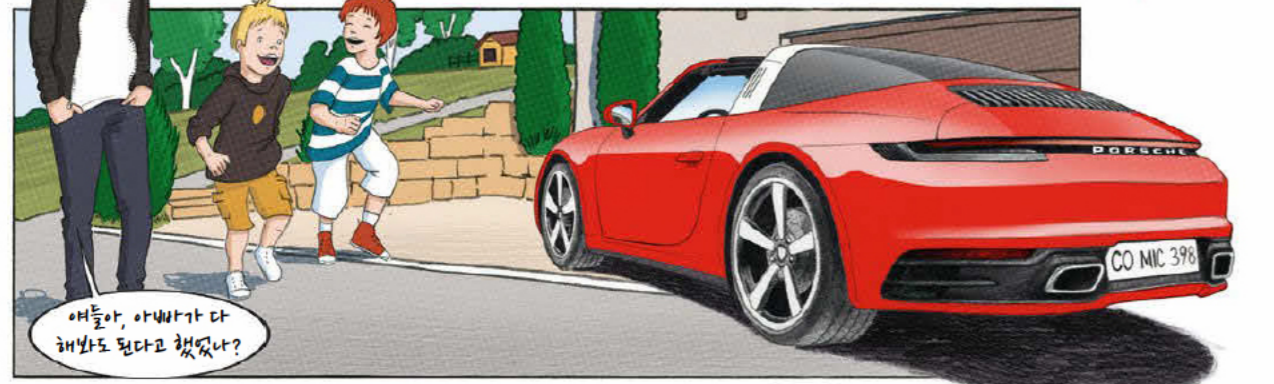
Porsche Teens

토비아스 딸게가 포르쉐 911 타르카의 탄생 과정을 되짚어 본다.



내가 먼저 타보고 싶어!

아버가 곧 새 포르쉐를 타고 오실 거야. 지분을 얼어봐도 된다고 하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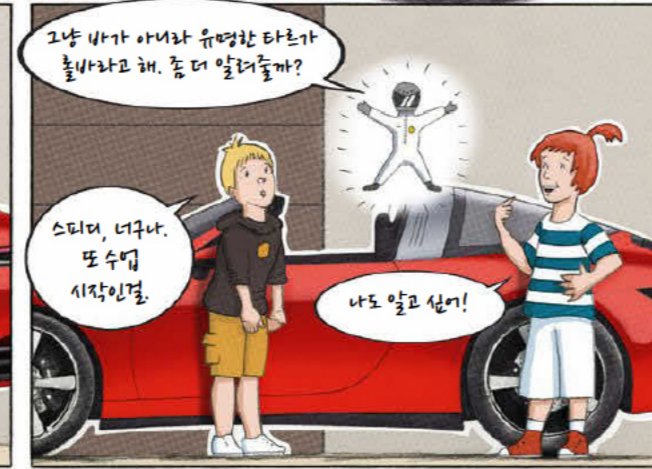


얘들아, 아버가 다 해봐도 된다고 했잖아?



우와, 정말 멋져요. 타봐도 돼요?

카브리올레는 왜 여기에 바가 있어요?



그냥 바가 아니라 유명한 타르카 롤바라고 해. 좀 더 알려줄까?

스티디, 너구나. 또 수업 시작인걸.

나도 알고 싶어!



역사는 너의 아버지만큼 오래되었어.

1960년대 미국에는 카브리올레가 인기가 많았는데, 나라에서는 금지하려고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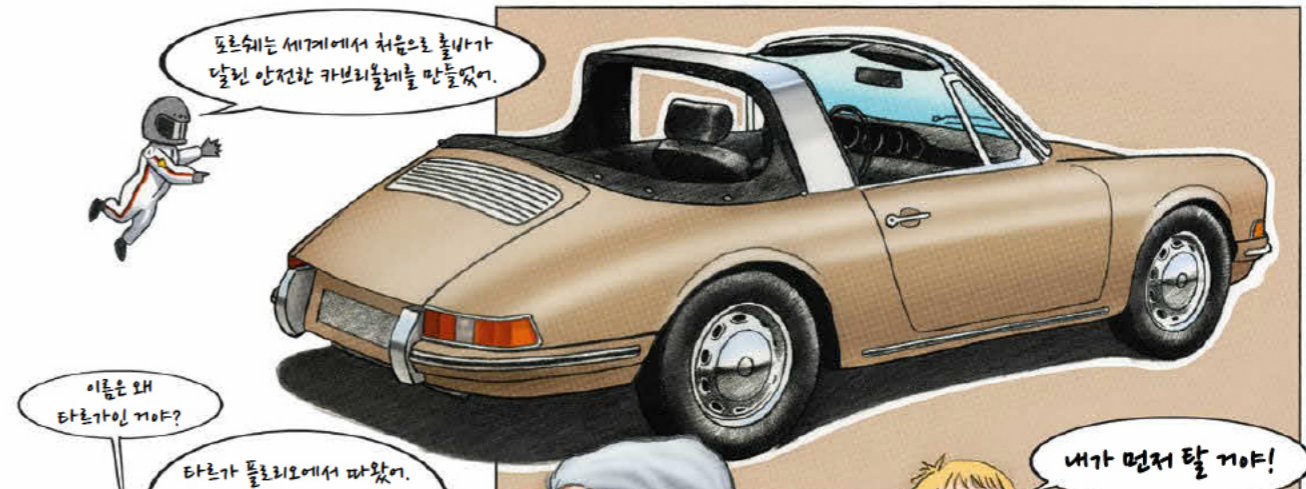
정말? 왜?

지분이 없으니까 뒤집히는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고 판단 한 거지. 요즘 카브리올레는 만드는 방식이 달라서 훨씬 안전해.

그게 포르쉐에 왜 중요한 일이었어? 어차피 독일에서 만든 차잖아.

맞긴 한데 포르쉐가 당시 미국에서 차를 많이 팔았거든.

그리고?



포르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롤바가 달린 안전한 카브리올레를 만들었어.

이름은 왜 타르카인 거야?

타르카 플로리오에서 파왔어.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서 열리는 유명한 레이스 이름이야.

내가 먼저 탈 거야!

우리 모두 탈 수 있어. 다른 911처럼 타르카도 2+2 좌석이야.



맞아. 포르쉐는 타르카 플로리오에 나가서 큰 성공을 거뒀지. 자, 이제 출발해볼까?



처음에는 손으로 루프를 열었어. 나중에 루프 유리를 많이 쓰면서 다른 방법이 나왔지. 2014년부터는 초기 디자인으로 돌아갔는데 루프는 모두 자동이야.

고마워. 스티디. 이제 신나게 달려보자고!

포르쉐 911 타르카 모델 (유형 기준)
복합 연비: 11.1~10.4l/100km
복합 CO₂ 배출량: 253~236g/km